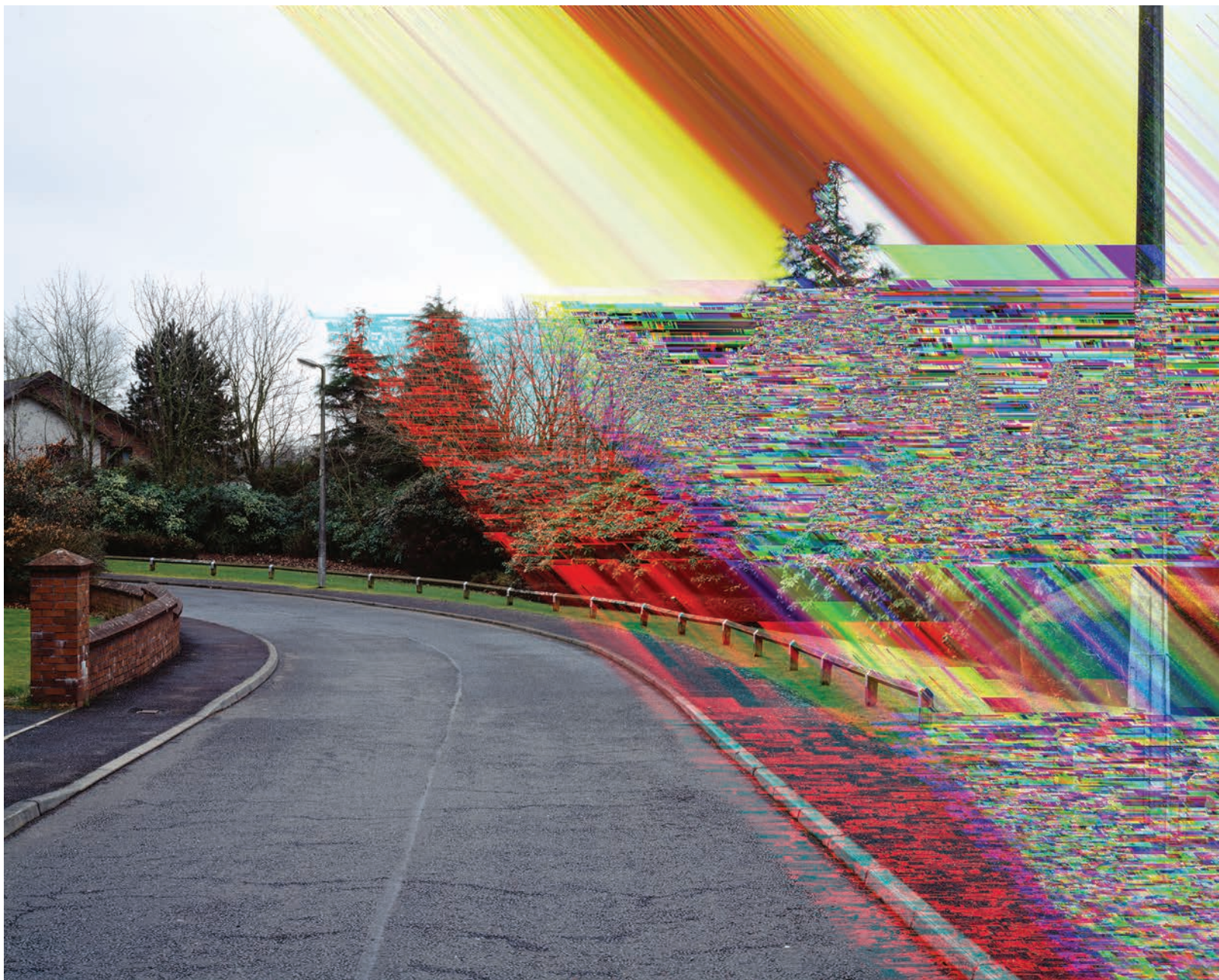


The Photographer's 2



"al-Megrahi", 12 Sherwood Crescent, Lockerbie, Digital C-Print, 100X125cm, 2011

반복되는 테러의 두 얼굴

First as Tragedy, then as Farce

KIM CHUN SOO

창백한 하늘 아래로 무표정한 회색톤의 좁은 도로가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인적 없는 주택가에는 소박한 벽돌 담과 크고 작은 나무들이 어울려 조용한 정적을 들려준다.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인 록커비에 처음 발을 들인 한 남자는 차분히 발걸음을 옮기며 담담하게 카메라를 움직인다. 이방인인 남자는 이곳에 오기 전, 뉴스 화면에서 보았던 장면들을 뷰파인더로 되짚어본다. 그가 바라보는 평범한 풍경과 조용한 정적 사이로 느닷없이 뉴스자막이 오버랩 된다. ‘탑승객 243명과 승무원 16명 전원사망, 마을주민 11명 사망’, ‘용의자 알 메그라히 무기징역 선고’, ‘피해자 유가족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허가’... 주마등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자막들이 멈추고 다시 정적이 흐르자 그는 이제야 록커비에 와있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이륙해 뉴욕의 케네디 공항으로 향하던 미국의 민간항공기 팬암 103편이 공중에서 폭발되어 록커비에 추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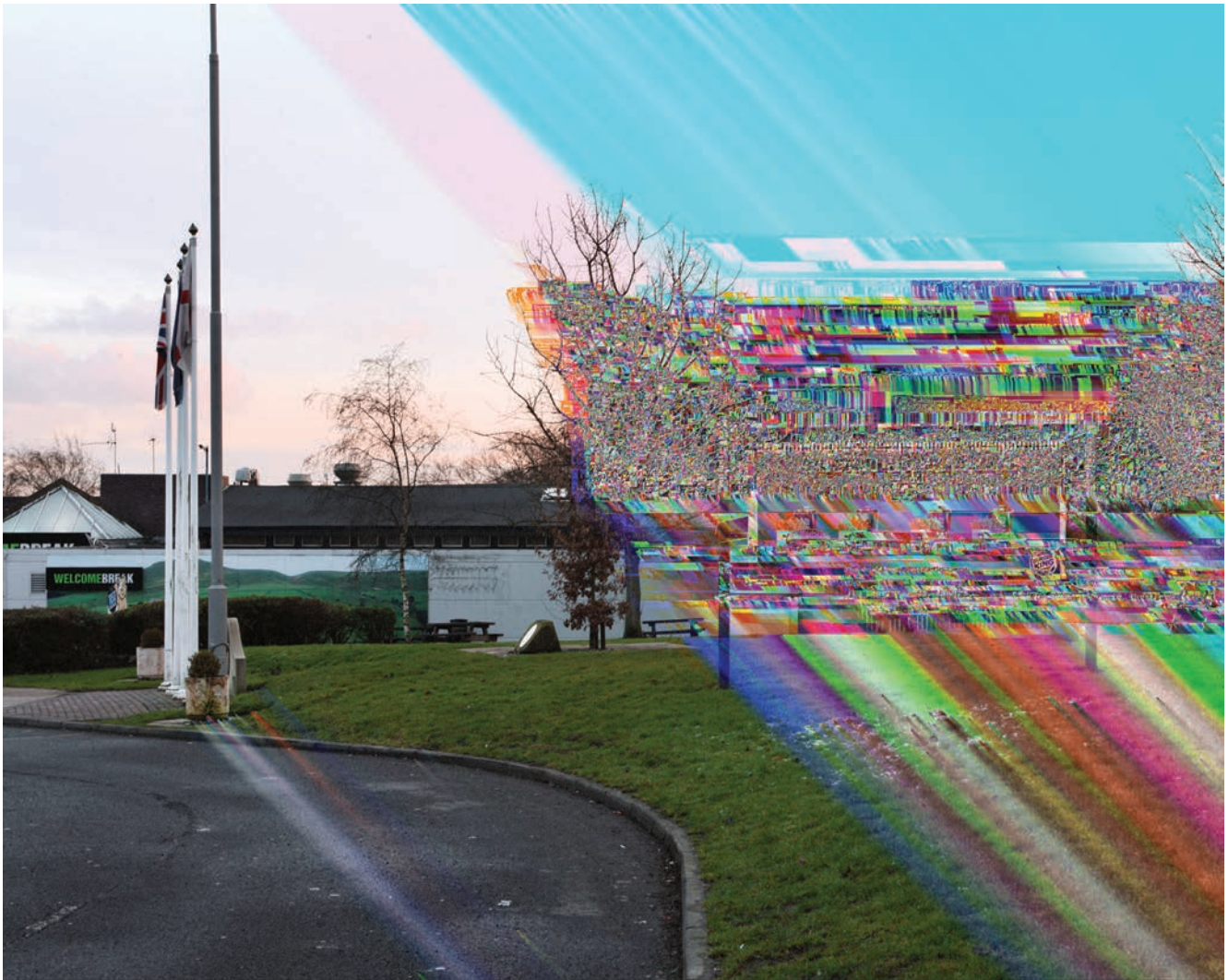
**테러사건의
순례여정**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 칼 마르크스의 유명한 경구에서 제목을 빌려온 김천수의 ‘First as Tragedy, then as Farce’ 시리즈는 영국에서 일어난 테러사건을 추적한다. 작가는 맨체스터, 런던, 버밍햄, 록커비 등 과거에 테러가 일어났던 현장을 촬영한 후 디지털 프로세스를 통해 이미지를 변형시켜 사진연작을 제작했다. 이번 시리즈의 중요한 단초가 되는 ‘팬암항공기 폭발사건’이 일어난 록커비는 작가가 2010년 유학을 떠난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서 자동차로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있다. 2009년 한창 유학을 준비하던 작가는 우연히 TV에서 팬암항공기 폭

파사건을 접했다.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던 범인이 가석방되면서 다시 이슈로 떠오른 옛날 사건은 한동안 진실공방으로 번지기도 했다. 자신이 유학 생활할 지역과 가까운 곳이라 더욱 관심을 갖게 된 작가는 영국의 테러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무자비한 테러가 수없이 반복되고 잊혀진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얼마 후 영국으로 건너간 김천수는 이미 지나간 테러사건의 현장을 순례하듯 찾아다니며 ‘테러리스트 스팟’이 기념촬영을 위한 ‘투어리스트 스팟’으로 변해가는 아이러니와 마주하게 된다.

- "0840 GMT", Parsonage Gardens, Manchester, Digital C-Print, 100X125cm, 2011
- "Rotunda", Tavern in the Town, Birmingham, Digital C-Print, 100X125cm, 2011
- "buama", A furniture shop, Shrewsbury, Digital C-Print, 100X125cm, 2012





"Judith Ward", Hartshead Moor service area, M62 motorway, Digital C-Print, 100x125cm, 2011

테러사건의 시각화

역사적 사건을 사립탐정처럼 추적하는 김천수의 작업은 테러현장을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각적 결과물과 프로세스를 제시해 흥미롭다. 이미지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오염될 때 생기는 총천연색의 노이즈는 눈에 거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각적 활기를 준다. 의도적으로 드라마틱한 구도와 앵글을 배제하고 평범하게 촬영된 1차 이미지는 'HEX 코드에디터' 프로그램을 통해 재가공된다. HEX 코드에디터에서 파일을 열면 이미지는 16진수로 코드화되며, 작가는 수많은 코드 중에서 임의로 몇개를 골라 테러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한다. 원래의 코드 대신 테러리스트의 이름이나 폭발물의 이름, 사건이 일어난 날짜나 사상자의 숫자

등을 입력하는 식이다. 이렇게 완성된 이미지는 픽셀이 손상되면서 원본과 다른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게 된다. 이처럼 수많은 코드 중에 하나를 골라 의도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작가의 행위는 테러리스트의 그것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하나의 코드에서 발생한 작은 오류가 이미지 전체에 영향을 주는 현상은 폭탄 하나가 사회 전체를 불안과 공포에 빠뜨려 사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테러의 위력과 묘하게 겹쳐진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작가가 작업노트에서 밝히고 있듯이 '테러리스트가 도시 어딘가에 심어놓은 작은 폭탄이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시각화'했기 때문이다.



- "Frangex", The Grand Hotel Brighton, Brighton, Digital C-Print, 100X125cm, 2012
- "a white Ford Cargo truck", Arndale shopping centre, Manchester, Digital C-Print, 100X125cm, 2012



폭력의 역사와 우리의 얼굴

— 김천수의 이번 작업은 직접적으로 1970년 이후에 영국에서 벌어진 테러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작가의 문제의식은 특정 지역과 시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작가는 궁극적으로 테러현장의 순례여정을 통해 그리고 테러행위의 시각화 과정을 통해 ‘반복되는 폭력의 역사’를 탐색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작가가 주목하는 테러는 과거에 종결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911로, 보스톤으로 재소환되는 현재 또는 미래의 폭력행위이다.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일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슬픔과 분노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응징과 보복이라는 또다른 테러가 반복될 뿐이다.” 작가는 테러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선과 악을 나누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지적한다. 실제로 테러리즘의 개념과 정의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이를 분명하게 선과 악으로 나누기 어렵다. 같은 사건이라도 한편에서는 테러로, 다른 한편에서는 애국적인 행동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작가는 훼손된 것처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미적 요소가 추가된 이중적인 이미지를 통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테러행위에 내재된 양면성을 들여다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테러를 통해 반복되는 폭력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김천수의 작업은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의 얼굴을 읽어내는 과정이다. 양면의 동전처럼 관점에 따라 테러리즘 혹은 애국행위로 평가되는 어떤 사건이 ‘테러’로 명확하게 규정되는 현상에는 현실세계의 다양한 힘과 논리가 작용한다.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에서 슬픔과 분노를 통감하는 동시에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대의 폭력 이면에는 현재 우리의 얼굴이 숨어있다. **MP**

글 | 박지수기자, 디자인 | 서바른기자



Kim Chun Soo Self Photerview

이방인의 신분으로 영국의 테러사건을 추적하고 테러현장을 순례하는 김천수의 작업여정을 들여다본다.

01. 자료조사

전쟁연구가인 퀸시 라이트(Quincy Wright)는 자신의 저서 '전쟁연구'에서 "폭력이나 전쟁은 자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평화는 인공적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작업을 위해 자료를 조사하면서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수많은 테러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천수 Kim Chun Soo



1981년 서울 출생. 2007년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2012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미술학교에서 순수미술 석사학위를 받았다. <리조트>(인사아트센터, 2009), <모텔투어>(스페이스바다, 2007) 등 2차례 개인전을 가졌고, 2013년 전주포토펙스티벌, 2008년 대구사진비엔날레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2007년에는 '학원의 빛' 공모전(중앙미술학원, 베이징)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스페이스바바 포트폴리오리뷰에 선정됐다. 사회, 역사, 디지털 이미징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02. 구글 맵, 구글 스트리트뷰

이방인인 나에게는 촬영을 떠나기 전에 구글 맵과 구글 스트리트뷰로 사건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해매지 않고 시간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가끔은 컴퓨터 화면으로 본 장소와 실제모습이 너무 달라서 당황했던 적도 있었다.

03. 여행

작업을 진행하면서 촬영시간보다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촬영을 위해 이미 구글에서 본 장소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 또한 작업의 일부이며, 결국 이러한 경험이 결과물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04. 일요일 이른 아침

대부분의 사진들은 일요일 이른 아침에 촬영되었다. 대부분의 테러가 많은 인파가 모이는 시내 중심가에서 주말 오후 시간에 일어나 피해를 극대화시킨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나는 반대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일요일 아침의 한적한 거리를 보고 있으면 내가 서있는 이곳이 정말 뉴스에서 본 테러의 현장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